

越 시장서 반품·배송사고 제로... 올해 주문 10만건 목표

인터뷰

박찬중 브이쇼핑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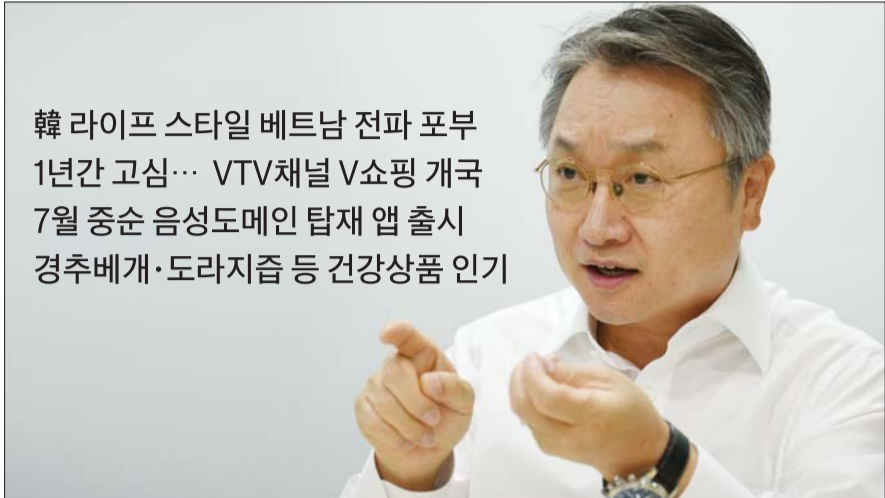
국내 주요 홈쇼핑 기업이 베트남 사업을 철수한 가운데, 전혀 다른 행보를 선택한 이가 있다. 지난해 5월 개국해 이제 갓 1년이 지난 박찬중 V쇼핑(V-SHOPPING) 회장 이야기다.

박 회장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베트남에 알린다는 포부를 안고 현지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다. 2018년 2월부터 현지 시장조사에 착수, 1년간의 고심 끝에 VTV 14번 채널에 V쇼핑을 개국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인구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해외시장이지만 홈쇼핑업계의 경우 성공사례가 드물다. 이미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은 베트남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V쇼핑은 지난해 5월부터 1년동안 콜수만 5만개, 주문 건수는 1만 5000개에 달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홈쇼핑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건수에 불과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반품 건수와 배송 사고가 '제로'라는 점이다.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박 회장의 올해 목표는 주문 건수가 10



박찬중 브이쇼핑 회장

/메트로신문DB

韓 라이프 스타일 베트남 전파 포부 1년간 고심... VTV채널 V쇼핑 개국 7월 중순 음성도메인 탑재 앱 출시 경추베개·도라지즙 등 건강상품 인기

만이 넘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V쇼핑의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반품률·배송 사고 '제로' 비결은

"V쇼핑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거나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100% 만족시켰거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죠. 소비자들의 성향이 좋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배송 사고가 제로인 이유는 간단하다. 배송은 '그랩'이 담당하는데, 그랩은 동남아 물류배송 서비스 1위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지역 구석구석을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데 빠르면 시내 기준 2시간만에 물건을 도착한다."

-TV보다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추세다. 모바일 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SNS와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오는 7월 15일에 앱(APP)을 출시한다.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벤처기업이 만든 음성도메인 '꿀업'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도 하고, 밥도 먹는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세우고 핸드폰 화면서 검색어를 치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꿀업'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우리 앱을 깔면 음성으로 한번에 검색이 된다. 편리함과 재미를

갖췄기 때문에 앱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또 앱 출시 기념으로 팔로워 30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함께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왔다고 생각한다."

-히트상품을 소개해달라.

"경추베개와 도라지배즙이 가장 많이 팔렸다. 매출액으로 보면 경추베개가 앞서지만, 팔린 개수는 배즙이 많이 팔렸다.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 관련 상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 돈 5만원 수준으로 판매했는데, 베트남 홈쇼핑에서는 5만원이면 고가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3만원대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V쇼핑도 단가를 조정해서 3만원대 상품을 많이 내놓을 계획이다."

-V쇼핑만의 판매 전략이 있다면.

"현재는 공산품 위주로 판매해왔다. 공산품은 재고가 있어도 상할 일이 없고, 관리비용도 저렴하다. 반면에 식음료는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관리비용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동안 식음료는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남의 식품회사와 함께 씨리얼바, 씨리얼 제품, 콜라겐 등 식품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 베트남에서 고급음식으로 통하는 삼계탕도 즉석조리식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위생적이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로 라인업을 구성하려 한다."

-V쇼핑의 운영 방향과 바람이 있다면.

"2023년이 되면 베트남 중산층이 2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을 갖춘 베트남 소비자들은 제품력을 따져서 소비할 것이다. V쇼핑을 통해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 소개하고 싶다. TV홈쇼핑은 방송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다. 우리 회사에 (중소기업이) 물건 샘플을 보내오면, TV 홈쇼핑에 소개도 하고, 연내 하노이에 200평 규모로 오픈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도 할 생각이다.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주문받아서 직구처럼 배송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도 V쇼핑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지역 특산품·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주문도 대신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가고 역할을 해보고 싶다. V쇼핑이 국내 좋은 제품을 베트남에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길 바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中소업체, "뿌리산업 '인력양성·고용유지' 절실"

중기중앙회,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뿌리산업 종사자 고령화 심각
석·박사급 인력 비중 1% 수준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등 요청

중소기업계가 뿌리산업 부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만 3만 3000여 곳 정도이고 종사자수는 55만 명, 관련 총 매출이 165조원에 달하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뿌리산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고용 장려금 확대 적용 등을 요청하고 나서면서다.

종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돼 숙련 기술 전수가 힘든데다가, 관련 분야 석사·박사 배출 인력도 적어 자칫 산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자동차 1대당 뿌리기술을 적

용해 제작하는 부품개수만 전체의 90% 가량인 약 2만2500개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뿌리산업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필요시엔 뿌리업종 중소기업을 우선해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도 3년간 월 50만원까지 늘려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은 2014년 당시 30대가 43.1%, 40대가 37.8%이던 것이 2018년 조사 시점에선 56.9%(30대), 62.2%(40대)로 고령화됐다.

또 종사자 가운데 기능인력 비중은 55.5%로 높지만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고작 1%로, 산업기술인력내 석·박사 비중(8.6%)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소성가공, 주조 등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해 기업들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23일 서울 마포 무신사에서 열린 '벤처 강국 만들기 위한 4차 산업혁명'에서 (왼쪽 2번째부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정운모 기보 이사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찬호 스파크랩 파트너,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기부·기관·단체 결집... 벤처 강국조성 협력

중진공·기보·벤처투자·벤처캐피탈협 무신사에서 업무협약, 박영선 장관 참여 유망기업 발굴 등 지원·투자 적극협력

'벤처 4대 강국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단체가 뭉쳤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3일 서울 마포 무신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협약체결 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벤처기업·예비유니콘 유망기업 발굴 및 상호추천 ▲융자, 보증, 공동투자, 해외진출 등 분야별 연계지원 ▲투자유치 인력이 없는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연계투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벤처기업과 예비유니콘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정책자금, 해외진출, 수출마케팅 사업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연

계 지원한다. 또한, 사업경쟁력을 인정받아 한국벤처투자에 초기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대출)을 매칭투자하여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기보는 중기부의 K-유니콘 서포터즈와 기보 VC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VC투자매칭 특별보증 등 투자와 연계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한도를 30억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속한 투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K-유니콘 서포터즈 등 VC에 기업정보·투자용 기술평가결과도 제공한다.

이번 협약식을 맺은 4개 기관은 중기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K-유니콘 서포터즈' 참여기관이다. 국내 대표 VC, 자산운용사, 대기업 등 50여개 기관과 협력해 후속(대형)투자 유치, 기관간 연계지원, 규제개선 등 정책 제언을 통해 대한민국 차세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소부장 강소기업 100' 국민평가단 모집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평가과정 모니터링·의견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국민과 함께 뽑는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일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작

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할 바 있다. 올해 나머지 45개사를 뽑는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대국민 공개심사로 3개월간 진행된다.

국민평가단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대국민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한다. 또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한다.

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백지연 수습기자 wldus0248@